



(미국사무소, 2026 October)

1 과학기술 R&D · ICT 연구 동향

1) 과학기술 R&D · ICT 분야

□ 양자물질 제어 통한 뉴로모픽 소자 기억 기능 구현

- UC 샌디에이고(UCSD) 연구팀이 결맞음 X선 회절(coherent X-ray diffraction) 기법을 활용해 뉴런의 기능을 모방한 인공 소자인 뉴리스트(Neuristor) 내부의 동적 변화를 관찰하고, 소자의 학습과 망각 상태를 제어하는 방법을 발견함.
-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미터 규모의 도메인(물질 내부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영역) 배열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현미경 기법을 활용해, 뉴리스트가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내부 상태를 관찰하고 제어하고자 함.
- 이러한 제어의 핵심 원리는 물질 내부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액체와 같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잼밍(Jamming) 상태로 전환되는 현상임. 내부 움직임이 제한되면 특정 상태를 학습하고, 다시 자유로운 움직임이 회복되면 저장된 기억이 지워지는 방식임.
- 이번 연구는 뉴리스트의 학습 및 망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뉴로모픽 소자 개발과 기초 재료과학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https://phys.org/news/2026-10-enable-memory-quantum-materials.html>

□ 미세플라스틱과 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질병 가능성

- 컬럼비아대학교와 UC 버클리 연구팀은 플라스틱이 미세·나노 입자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과 접촉한 표면의 화학적 반응성이

- 높아지며, 생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반응성 분자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Nature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이론적 계산과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미세플라스틱이 물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를 규명함.
 - 플라스틱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표면 영역이 증가하며, 이 과정에서 주변 물 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종(ROS)이 생성될 수 있음. 이러한 활성산소종은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어 동물과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연구는 혈액을 비롯한 인체 조직에 수분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체내에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혈류나 세포 내에서도 화학적 반응성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함. 이는 그동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미세플라스틱의 생체 손상 및 질병 유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https://phys.org/news/2026-10-microplastics-chemically-biological.html>

□ ‘아이디어’ 로 AI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탐지기 개발

-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와 구글 딥마인드 등 공동 연구팀이 문서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이 아닌, 글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를 분석해 AI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새로운 탐지 도구 ‘IdeaLens’ 를 개발함.
- 연구팀은 문서를 각 부분의 역할과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개요(outline) 형태로 변환해 원문과의 단어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문장의 표현 방식보다 글에 담긴 아이디어와 내용적 특성에 집중하도록 설계함.
- 이 방법을 활용한 실험에서 AI가 생성한 문서의 91%를 정확하게 식별했으며, 인간이 작성한 문서를 AI 생성물로 잘못 판단한 비율은 0.6%임.
- 분석 결과, 인간이 작성한 문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 검증 가능한 출처, 주장에 대한 한계 인정 등의 특징을 보인 반면, AI 생성 문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검증하기 어려운 수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장 등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도구의 정확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개별 문서의 AI 생성 여부를 단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습 및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와 특성이 다른 문서에서는 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함.

※ <https://techxplore.com/news/2026-10-detector-ai-generated-ideas-words.html>

□ AI의 공간·시간·고통 이해 능력 해석에 대한 의문

-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대학교(FAU) 연구팀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내부에서 추출되는 정보가 AI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나 내부 표상을 의미한다는 기존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arXiv에 사전 공개된 이번 연구에서는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통계적 패턴을 수치로 표현한 비교적 단순한 수학적 구조인 ‘단어 벡터(word vector)’ 만으로도 LLM 내부에서 발견되는 정보를 재현할 수 있는지 분석함.
- 분석 결과, 단어 벡터만으로도 LLM에서 추출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재현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고통과 감정 관련 개념을 분류하는 작업에서는 LLM에 근접한 정확도를 보임.
- 최근 AI가 내부적으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델을 형성하며, 나아가 고통과 같은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챗봇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제한하는 등 AI의 도덕적 지위를 고려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이번 연구는 LLM 내부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정보가 반드시 AI의 실제 이해나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습에 사용된 텍스트의 통계적 연관성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AI의 이해 능력과 의식 여부, 도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 <https://techxplore.com/news/2026-10-ai-space-pain.html>

□ 고혈압 치료제, 건강에 이로운 지방 활성화 가능성

-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지원을 받은 록펠러대학교 연구팀이 고혈압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로사르탄(losartan)이 체내 에너지를 열로 전환하는 갈색지방의 활동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Nature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분석 기법을 활용해 10만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500개 이상의 질병 진단 코드와 갈색지방 활동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함.
- 분석 결과, 갈색지방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심혈관 및 대사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불안과 우울증의 발생률도 낮게 나타나는 등 갈색지방과 정신건강 간의 새로운 연관성도 확인함.
- 또한, 로사르탄을 비롯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갈색지방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약물이 갈색지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됨.
- 이번 연구는 갈색지방의 활성화가 심혈관·대사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향후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갈색지방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eleases/blood-pressure-drug-may-activate-health-promoting-brown-fat>

2) 인문 · 사회분야

□ 미국인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단순화

- UC 버클리 연구팀이 이민, 기후변화, 정치 후보 선택 등 복잡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 단순화된 판단 방식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가상의 이민자 입국 허용 여부, 상원 의원 후보 선택, 기후 정책 선호도 등에 관한 선택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응답자의 선택 패턴을 분석해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새로운 인지 모델을 개발함.
- 분석 결과,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경우는 30% 미만이었으며, 대다수 응답자는 정치적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인간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함.

※<https://news.berkeley.edu/2026/10/01/on-complex-political-issues-most-americans-take-shortcuts-to-simplicity/>

□ 연방 긴급 지원 제도의 사기 방지 방안

- 뉴욕주립대와 시러큐스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연방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수급 문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 Journal of Accounting, Ethics & Public Policy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PPP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독과 검증 절차가 미흡해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 주목함.
-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약 64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연구팀은 허술한 신청자 검증과 관리·감독으로 인해 서류 위조나 유령 회사 설립 등을 통한 부정수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함.
- 연구팀은 향후 연방정부의 긴급 지원 제도 운영 시 신청자 검증 강화, 사기 방지 활동의 일원화, 법회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핀테크 대출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속한 자금 지원과 공적 자금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함.

※ <https://phys.org/news/2026-10-fraud-federal-relief.html>

□ AI로 작성한 온라인 청원의 효과 분석

- 코넬대학교 연구팀이 온라인 청원 플랫폼(Change.org)의 AI 글쓰기 도구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사례를 활용해, AI가 수정·개선한 청원문이 실제 청원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 Nature Human Behaviour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총 150만 건의 청원을 수집·분석했으며, AI 도입 전후 모두 청원을 작성한 이용자들을 별도로 분석한 경우에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남.
- 분석 결과, AI 글쓰기 지원은 청원문의 길이와 어휘의 복잡도를 높이고 제목을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등 글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켰으나, 댓글과 서명 수 등 실제 청원 참여도는 개선되지 않음.
- 연구팀은 AI가 글쓰기 과정을 지나치게 쉽게 만들면서 작성자의 주인의식이 약화되고, 청원 성공에 중요한 홍보 활동에 기울이는

노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함.

- 연구팀은 향후 AI 글쓰기 도구에 개인적 맥락을 반영하거나 작성자가 AI 초안을 직접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원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https://phys.org/news/2026-09-ai-petitions-changeorg-text-success.html>

□ 녹지 공간과 총기 살인 감소의 연관성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녹지 공간이 총기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녹지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2022년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를 대상으로,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사망 사건 발생 장소에서 보행자의 시선으로 보이는 녹지의 양과 유형을 측정함.
- 분석 결과, 눈에 보이는 녹지와 나무 그늘, 보행로 주변 녹지가 많을수록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총기 살인일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음.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원과 가까울수록 총기 살인 위험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빈곤, 주거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취약 요인의 영향이 녹지의 긍정적 효과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음. 이에 따라 녹지 조성은 주거 및 식량 안정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사회 개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https://phys.org/news/2026-10-green-space-linked-gun-homicides.html>

□ Z세대 창업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 사명 지향

- 조지메이슨대학교 연구팀이 젊은 창업가일수록 자신의 사업을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명 중심(mission-driven)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추구하는 사명의 내용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2024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미국 창업가 1,600명의 응답을 분석했으며, 이

중 629명이 자신의 사업을 환경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둔 사명 중심 기업으로 규정함.

- 분석 결과, 젊은 창업가일수록 자신의 사업을 사명 중심 기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구하는 사명의 내용에서도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의 사명 중심 창업가는 환경 관련 문제를 압도적으로 선호한 반면, 젊은 창업가는 소외계층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 <https://phys.org/news/2026-10-gen-entrepreneurs-prior-generations.html>

2 과학기술 R&D · ICT 정책 동향

1) 과학기술 R&D · ICT 분야

□ 미 백악관, 60억 달러 규모 과학 진흥 계획 발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 새로운 황금시대(Science: A New Golden Age)’ 정상회의에서 AI 기반 과학 연구, 첨단 컴퓨팅 시설 구축, 박사과정 단축 프로그램, 연구비 지원 및 동료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총 60억 달러 규모의 과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엔비디아(10억 달러), AMD(5억 달러), 오픈AI(2억 달러) 등 11개 기업이 에너지부(DOE)의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에 총 24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자원과 AI 도구를 제공하기로 약정함.
- 에너지부는 AI와 과학·공학 분야를 결합한 4년제 박사과정 펠로십 프로그램(1억 달러)을 마련했으며, 국립과학재단(NSF)은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만에 이수할 수 있는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함.
- 이 밖에도 NSF의 양자 응용 및 합성 다세포 분야 연구 경쟁 과제와 국립보건연구원(NIH)·에너지부·바이오허브(Biohub)가 추진하는 18억 달러 규모의 AI 기반 세포 및 생물학적 시스템 모델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됨.

- 이번 발표는 직전 회계연도에 NIH와 NSF의 연구비 지원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감소하고, NSF가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직후에 이루어짐.

※ <https://www.aip.org/fyi/the-week-of-october-12-2026>

□ 미 백악관, 미국·한국 등 17개국의 ‘교토 비전’ 지지 발표

- 미국 백악관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23차 과학기술사회(STS) 포럼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일본·영국 등 총 17개국이 ‘과학의 황금시대를 위한 교토 비전(Kyoto Vision for a Golden Age of Science)’을 지지했다고 발표함.
- 동선언문은 연구 생산성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혁신적 연구 촉진을 목표로, 연구 제도 개선, 초지능(SI)의 과학적 활용,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세가지 방향을 제시함.
- 연구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 지원, 신속 지원, 상금·도전과제 등 다양한 연구지원 방식과 새로운 연구조직 모델의 실험을 권장함. 또한 연구 수행·조직·지원 방식을 실증적으로 개선하는 메타사이언스의 활용과 재현성·투명성·공정한 동료평가 등 과학적 진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초지능 활용과 관련해서는 방대한 지식의 분석, 물리·생물학적 시스템의 정밀한 모델링, 자율적 실험 등에 초지능을 접목하는 연구를 장려하고, 관련 도구·과학 데이터·컴퓨팅 인프라실험시설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성 확대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
-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초기 경력 연구자의 조기 발굴과 지원, 첨단 연구장비의 운영·유지·개선에 필요한 실무 경험 확대를 권장함. 아울러 공동 박사과정, 펠로십,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음.

※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6/10/us-leads-international-coalition-to-endorse-kyoto-vision-for-a-golden-age-of-science/?utm_source=chatgpt.com

□ NASA 연구비 집행 지연 장기화, 과학계 우려 확산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비 지급이 수개월에서 최대 1년 가까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임명직 인사들이 연구비 심사 및 선정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과거에는 NASA의 프로그램 담당자가 연구비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했으며, 선정부터 실제 연구비 지급까지 통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음.
- 백악관은 지난 5월 모든 연방 연구비에 대해 정치적 임명직 인사가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안했음. NASA도 6월 연구 공모 안내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심사가 의무화됐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과학 연구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수한 학부생들이 대학원 진학 대신 민간 부문으로 진출해 미국 학계의 과학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https://www.aip.org/fyi/nasa-funding-delays-raise-alarms-for-researchers>

□ 미국 비영리기관 자체 R&D 지출 감소, 외부 지원 증가

- 미 국립과학재단(NSF) 산하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의 조사 결과, 미국 내 비영리기관이 2024 회계연도에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약 2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감소했음.
- 재원별로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112억 달러(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관 자체 자금 86억 달러(29%), 영리기업 지원금 37억 달러(13%) 순으로 나타남.
- 연구 유형별로는 기초연구가 155억 달러(53%), 응용연구가 93억 달러(31%), 실험개발이 47억 달러(16%)를 차지했음. 연구 분야별로는 생물·생의학·보건과학 분야가 전체의 74%(21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해당 분야의 지출은 전년 대비 7% 감소함.
- 반면, 비영리기관이 다른 기관의 R&D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연구비는 전년 79억 달러에서 105억 달러로 33% 증가해, 자체 R&D 지출 감소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https://ncses.nsf.gov/pubs/nsf26329>

□ 미 NSF와 영국 UKRI, 메타과학 분야 협력 추진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영국 연구혁신청(UKRI)이 연구비 지원, 연구 수행 및 과학기술 체계 운영 방식에 과학적 실험과 분석 방법을 적용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메타과학(metascience)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양 기관은 미국의 메타과학 원칙과 NSF의 ‘새로운 과학 황금시대의 리더십’ 각서, ‘UKRI 전략 2026-31’에 제시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연구 지원·수행·평가 방식 자체도 과학적 연구와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 및 기관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
- 주요 협력 분야로는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 측정, 연구 심사 및 연구비 지원 방식 개선, 새로운 연구 방법과 도구의 활용 현황 평가, 메타과학 관련 데이터의 책임 있는 분석 등을 제시함.
- 또한 NSF 메타과학실과 영국의 메타과학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기반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구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실험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 메타과학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 <https://www.nsf.gov/news/nsf-ukri-metascience-statement>

2) 인문·사회분야

□ NSF 메타과학실 신설 계획에 연구자들 회의적 시각

-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연구비 지원 방식 개편과 메타과학실 신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기존 동료평가 체계의 약화와 연구비 지원 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메타과학은 연구의 재현성,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과학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로, 메타과학실 신설은 2027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서 처음 제안됨.
- 일부 전문가들은 개별 심사위원이 전체 심사위원단의 승인 없이도 연구과제를 통과시킬 수 있는 ‘골든 티켓(Golden Ticket)’ 제도 등을 사례로 들며, 기존 패널 중심의 동료평가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메타과학실이 NSF 총재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우려함.
- 반면, 메타과학을 통해 연구비 지원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되고 있음. 다만 연구비 지원 방식에 대한 실험은 연구자들의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험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와 자발적 참여 원칙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주요 과제로 지적됨.

□ 미 국토안보부, 외국인 유학생 OPT 수수료 신설 제안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관련 실무훈련·취업을 허용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고액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규칙안을 발표함.
- 제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학생의 최초 OPT 신청에 7만 달러, 이후 갱신에 3만 달러를 납부해야 함. DHS는 제도 악용 방지와 미국 근로자 보호를 추진 이유로 제시함.
-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과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기술기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국제인재 유입 위축이 미국의 혁신과 인력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함.
- 해당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이며, 향후 의견수렴과 법적 대응 과정에 따라 시행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https://apnews.com/article/opt-dhs-fee-international-students-enrollment-schools-0919dcbc5a61a589e01ec29041a2087e>

□ 미국 상원, 초당적 ‘과학혁신 코커스’ 출범

- 미국 데이브 매코믹(공화당·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존 히컨루퍼(민주당·콜로라도) 상원의원이 미국의 과학 연구와 연구 성과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원 초당적 과학혁신 코커스(Senate Bipartisan Science and Innovation Caucus)’를 결성한다고 발표함.
- 코커스는 산업계 및 연구계와 협력해 미국의 과학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과학 연구 지원 및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법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역할을 할 예정임.
- 두 의원은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중국이 R&D 투자 규모, STEM 분야 박사 배출 및 국제 특허 출원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벤처캐피털 투자 격차도 좁히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경제력과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과학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https://www.mccormick.senate.gov/news/press-releases/mccormick-hickenlooper-announce-for>

□ 트럼프 행정부, 기편성 예산 철회 위법성 논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적이고 해로운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의회가 이미 승인한 2026 회계연도 예산 중 8억 1,000만 달러를 취소하는 이른바 ‘포켓 철회(pocket rescission)’를 단행함.
- 철회 대상에는 이민 서비스와 교육부의 국제교육·외국어 프로그램 등 보건·교육 분야 사업이 포함됐으며, 보건복지부(HHS) 산하 소수자 보건국과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도 삭감됨.
- 행정부는 회계연도 종료를 45일 이내로 앞둔 시점에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반면,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포켓 철회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https://cossa.org/trump-administration-rescinds-810-million-in-appropriated-funds-lawsuits-pending/>

□ 미국 회계연도 종료 시점 연방 연구비 집행 부진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해양대기청(NOAA), 보건의료연구품질청(AHRQ) 등 주요 연방 기관의 연구비 지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방 연구비 추적 단체인 그랜트 위트니스(Grant Witness)에 따르면, NSF의 연구비 지원 건수는 6,200건으로 전년 동기 (8,600건)는 물론, 이전 4년간의 연간 지원 건수(1만 건 이상)보다 크게 감소했음. 총 지원액 역시 63억 달러로 전년(8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함.
- AHRQ의 연구비 지원 실적은 61건,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0여 건, 1억 8,100만 달러) 대비 급감했으며, NOAA 역시 229건, 6억 7,900만 달러에 그쳐 2021~2024년 연평균 실적(891건, 17억 5,000만 달러)을 크게 하회함.

※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government/science-research-policy/2026/09/21/nsf-over-billion-behind-grants-ies-says-will>

□ 링크드인 2026 톱 스타트업, AI가 창업 생태계 재편 주도

- 링크드인(LinkedIn)이 올해로 발표 10주년을 맞은 ‘톱 스타트업(Top Startups)’ 순위에서 유망 스타트업 5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 1위는 앤트로픽(Anthropic), 2위는 머코어(Mercor), 3위는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차지함.
- 올해 순위의 주요 특징으로는 22세에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된 머코어 창업자들과 전 트위터 CEO 파라그 아그라왈 등 새로운 창업자층의 부상,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성장 전략의 확산, 올해 우주기술 스타트업에 165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국방·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꼽혔음.
- 특히 AI가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전 세계 전문직 종사자 10명 중 4명이 AI의 영향으로 창업 의지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음.
- 지난 10년간 선정된 315개 기업 중 52%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27%는 상장되거나 인수된 반면, 폐업한 기업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https://news.linkedin.com/2026/top-startups-2026>

□ 미국 벤처투자 사상 최대 기록, AI가 83% 차지

- 피치북(PitchBook)과 미국벤처캐피털협회(NVCA)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벤처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9월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5,158억 달러로 2021년 연간 최고 기록을 약 44% 상회했으며, 이 중 AI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사상 최고 수준인 82.7%를 기록함.
- 벤처캐피털 투자는 AI 분야와 소수의 초대형 투자 라운드에 집중된 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시장 환경은 여전히 경색된 상태임.
- 스페이스X가 1조 7,0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진행했음에도 전체 상장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3분기 상장 기업은 18곳에 그쳤고 대부분이 헬스케어 분야에 속함.
-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성과를 입증한 운용사에 자금을 재투자하면서, 일부 대형 운용사로의 자금 집중

현상이 심화됨.

- 반면, 신생 및 중소형 운용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자금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 <https://www.altassets.net/featured/ai-takes-83-of-us-venture-investment-as-record-516bn-market-masks-fundraising-divide.html>

□ 아마존, AI 스타트업 디카트(Decart) 인수 협상

- 아마존이 서로 다른 AI 칩 간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AI 스타트업 디카트(Decart)를 약 7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디카트는 2023년 설립된 샌프란시스코 기반 기업으로, 세쿼이아 캐피털, 벤치마크,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총 4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 5월 시리즈 B 투자 유치 당시 약 4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음.
- AI 컴퓨팅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AI 칩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카트의 기술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25년 디카트에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엄3(Trainium3)’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 바 있음.
- 앞서 앤트로픽(Anthropic)도 약 60억 달러에 디카트 인수를 추진했으나, 지난 9월 실사를 진행한 후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wsj.com/business/deals/amazon-in-talks-to-buy-ai-startup-decart-for-around-7-billion-9433abad>

□ 벤처캐피털 수익 90%, 상위 5% 투자자에 집중

- 스탠퍼드대학교와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미국 벤처캐피털(VC) 업계 종사자 10만 명 이상의 경력 데이터를 구축·분석한 결과, 극소수의 ‘슈퍼스타’ 투자자에게 업계 전체 수익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팀은 1996~2025년 미국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활동한 투자자 약 1만 2,000명이 창출한 총 1조 2,000억 달러의 순이익을 분석함.
- 분석 결과, 상위 5% 투자자가 전체 순이익의 90%를 차지했으며, 특히 상위 1%(약 120명)의 투자자가 전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실적이 있는 투자자 중 기업공개(IPO), 투자 기업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등극, 조달 자본의 5배 이상 가치로 기업 매각 등 성공 사례를 1건 이상 보유한 비율은 38%에 그쳤으며, 3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투자자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https://phys.org/news/2026-10-tiny-venture-capitalists-capture-profit.html>

□ 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SBIR·STTR) 성과 데이터 부실

-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의 사업화 성과 관련 데이터가 불완전해 연구개발(R&D) 지원에 따른 투자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SBIR·STTR은 연구개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11개 연방 기관이 참여하며 중소기업청(SBA)이 총괄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받은 기업들이 과거 수행한 연구과제의 사업화 성과 보고서를 절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참여 기관은 기업에 보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거나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 이에 GAO는 교육부, 국토안보부,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NSF) 등 참여 기관에 사업화 성과 보고 요건에 대한 안내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SBA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

※ <https://legisl.com/news/sbir-awards-small-business-programs-hampered-by>